

■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제목 :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

성경: 마태복음 1장 1-6절

Tag:

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

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

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

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

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

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(마1:1-6)

마태복음 1장 첫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족보가 등장한다. 그런데 족보에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한다. 바로 보통 상식적이지 않는 인물 4명의 여인의 이름이다.

-보통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, 이삭은 야곱을 낳고~

-3. 유다는 **다말**¹에게서 **베레스와 세라**를 낳고~

-5. 살몬은 **라합**²에게서 보아스를 낳고, 보아스는 **룰**³에게서 오벧을 낳고

-6. 다윗은 **우리야의 아내(밧세바)**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

1. 다말

-유다의 며느리

-첫번째 남편 엘, 둘째 동생 오난, 셋째 동생 셀라

-야살의 책에는 엘과 오난이 같은 죄로 죽었다고 기록됨.

-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둘 다 죽임을 당함.

-다말 입장에서는 이 집안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? 아버지와 아들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, 정의가 달랐다고 볼 수 밖에 없다. 그렇담, 결국 다말 만 희생양이 된다.

-결국 유다는 셋째 셀라도 죽을까 걱정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냄.(딤후 1-블레셋 지역)

-결국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도 죽었다. 그후,

-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로 분장하여 저당물을 받고 시아버지를 맞아들임.

-그녀는 죽임을 당할 즈음에 시아버지의 저당물을 내어 보냄.

-그녀는 베레스와 세라는 낳음. 세라가 먼저 나왔으나, 베레스가 먼저 나오려고 형을 끌어 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옴. 먼저 장자가 되려는 DNA가 탑재된 집안임을 알 수 있음.

2. 살몬은 **라합**에게서 보아스를 낳음

-라합은 여리고 기생

-그녀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,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

-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과 결혼하게 됨.

-라합은 몰살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살림.

3.룣

-이방여인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나섬.

-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아내가 됨.

-오벳-이새-다윗 가문을 이음.

4. 우리아의 아내(밧세바)

-특이하게 마태는 그녀를 **우리아(헷사람)의 아내**로 소개함.

-밧세바만 유대인, 나머지 3명의 여인은 이방여인.

-대신 밧세바는 남편이 이방 사람.

-밧세바의 유혹인가 다윗의 성폭력인가? 둘 다이다.

-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가, 아히도벨의 손녀인가?(엘리암의 딸)

-마태는 왜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가?

-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로 알려지기 위해서.

-밧세바의 이름은 사악한 모략가의 손녀가 아닌, 폭군 다윗의 아내가 아닌, 지혜로우나 결국 타락한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닌, 충성스러운 장수, 이방 사람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불리웠다.

-아마 우리아는 아내의 불륜을 눈치챘을 것이다. 그는 왕의 음모도 눈치챘을 것이다. 그러나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. 그는 아내를 위해서 장렬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. 사실 딱히 더 나은 길도 없다. 아마 밧세바는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큰 소리로 통곡했을 것이다.

-밧세바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나약한지를 증명해 주는 존재다.

-인간이란 갖가지 율법을 만들어 자기가 더 사악해지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존재이면서도,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 그 율법을 허무는 존재이다.

-그러면서도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, 징죄하고,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존재다.

-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정의이며, 유일한 재판관이시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(모든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고 독심술이 가능한 유일하신 분).

-율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때 그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. 그러나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.

왜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는 족보를 무덤덤하게

묘사하고 있을까?

-죽보가 특이해 보여야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보실까?

-이방여인에게 있어서 공통점이란?

1.살려고 몸부림 치. 땀을 흘려야 한다. 죄인의 삶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. 살려고 흘리는 땀.

2.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타는 듯한 영적 갈망, 구원에 대한 갈망.

3.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-우리아의 길.

-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기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.

-어차피 인생은 저주요, 고난이요, 죄악 투성이요, 컨트롤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다.

-모든 인생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요, 모든 죄와 저주와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예수 밖에 없다.

*유다;이기적인 삶 (셀라를 아낌)

엘과 오르난;이기적인 삶

다말;율법주의를 파괴하고, 죽음을 무릎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함. (진퇴양난의 인생길에서,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구덩이에서 창녀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한 진정한 페미니스트)

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었지만, 다윗에게 충성함.

-그는 동료 군인들에게도 충성함.

-마지막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전투에서 죽기까지 충성함.

다말과 라합과 룯과 우리아는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충성함.

-다른 사람들은 온갖 세속적인 야망을 쫓느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됨.

-아히도벨은 끝에 가서 왕까지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 멸망함.

-인생은 긴 듯 하면서도 짧고, 화려한 듯 하지만 몹시 초라하고, 야망으로 가득찰 것 같지만 남겨진 것은 겨우 목숨 하나요, 화려하나 피 묻은 왕관이 아닌, 충성 다해 얻게 되는 승리가 복이다.

-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한 가치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
<찬양예배>

제목 : 성경:

Tag: